

# 중앙정부도 '공무원퇴출' 제도화

중앙인사위 '성과평가 지수' 상반기 적용  
단계별 비율 의무 할당 강제퇴출 불가피

서울시와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쇄신'(무능공무원 퇴출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도 '생산성향상·퇴출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개발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공직사회에 일대 회오리가 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면>

특히 중앙정부는 '생산성향상·퇴출제 도입' 장치를 늦어도 상반기내에 도입키로 하고, 지방과는 달리 '고위공무원단'에 먼저 적용할 계획이어서 5급 이하 하위직을 주된 대상으로 한 지방의 퇴출제가 지방고위직으로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고위관계자는 25일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늦어도 올해 상반기중에 '성과평가가 관대화 지수'를 개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과평가 관대화 지수'란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등 5단계로 되어 있는 현행 '성과평가 지수'에 각 단계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강제화하는 하는 제도다.

인사위는 현 성과평가 지수의 문제점을 막고 퇴출제를 적용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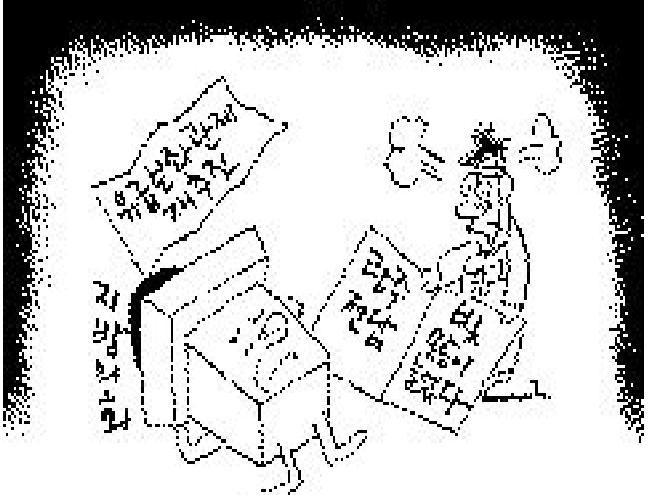
▲ '탁월·우수' 비율제한 ▲ 연공서열 별 5단계 평가비율 할당 ▲ '미흡·불량'을 받은 공무원이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나을 수 밖에 없어 강제퇴출이 불가피해진다. /연합뉴스



박광태 광주시장(왼쪽에서 두번째)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특수금형 제조업체인 Richard Tool & Die사의 리처드 하이드리히 사장(맨 왼쪽), 주물제조업체인 Hydro사 조지 해리스 사장 내외와 투자 유치 MOU를 체결했다. (광주시 제공)

## 국민 만족

- 김종두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 광주시 1,700만달러 美투자유치 성공

미주 지역 투자유치활동에 나선 광주시 투자유치단이 뉴욕과 시카고 지역에서 1천7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및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출국한 투자유치단은 20~21일 뉴욕에서 300만달러 규모의 광주 김지 '감칠배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데 이어, LED(발광다이오드) 제조 핵심장비인 'MOCVD(유기금속화학기상증착기)' 제조회사인 Veeco사와 4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체결, 수출계약 그리고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9일 귀국할 예정이다.

투자유치단은 또 22일 시카고에서 금형분야 주를 제조업체인 Hydro사의 을 평동산단 5천평 부지에 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특수금형 제조업체인 Richard

Tool & Die사와 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하고 올해 안에 투자를 결정키로 했다.

이어 23일 벨링แฮ시 투자설명회에서도 팀 더글러스 시장과 밥 라이언 시의회 의장, 한국전에 참전한 뒤 전쟁고아 돌보기에 노력해 광주시 명예 시민이 된 조지 드레이크 박사, 광공학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투자유치단은 지난 19일 출국해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LA지역 등 미국 전역에 각종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투자협약체결, 수출계약 그리고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9일 귀국할 예정이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 술·담배 소비 17년만에 줄었다

작년 6조6천억... 전년보다 4.5% 감소

지난해 국내 가계의 술·담배 소비가 17년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가운데 주류 및 담배의 지출액(실질 기준)은 6조7천549억원으로 2005년 말보다 4.4% 감소했다. 이는 1989년 연간 6조5천464억원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에

해당한다.

가계의 술·담배 소비액은 1993년 7조5천827억 원으로 사상최고치를 나타낸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2004년 7조5천262억원을 기록한 후 2005년 7조702억 원 등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급연 열풍과 웨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흡연율이 떨어지고 술 소비도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술·담배는 제외되고 가계에서 직접 구입하는 부문만 해당되며 때문에 실제 소비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 친환경농업에 자연 살아난다

## 농약 사용량 감소세로 생태계 복원

### 순천만·영산호 등 철새 개체수 증가

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의 덤으로 생태계도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 덕분에 토양 염류농도와 석회요구량이 감소해 생태계도 복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가 최근 도내 배·감·사과 등 10개 작목의 과수원 150개 지점에 대상으로 염류농도, 산도 등 '토양비옥도'를 검증한 결과 토양염류는 0.60ds/m<sup>3</sup>로 조사됐다. 이는 친환경농업을

본격 추진하기 전인 2002년 0.84ds/m<sup>3</sup>에 비해 29%가 줄어든 것으로 친환경농업 추진에 따라 토양환경도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토양염류가 줄어들면 작물의 수분 및 양분 흡수율이 높아지고 생육이 촉진된다.

또 토양의 화학성분량 분석 조사에서도 유효인산 함량의 경우 507mg/kg에서 534mg/kg로 5.3% 증가하고 석회요구량은 10a당 257kg으로 2002년 341kg에 비해 24.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환경농업 확산에 따라 농약 사용량 전국대비 점유율도 혼령전남 일부 공급량 기준으로 2006년 14.2%에서 11.4%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순천만의 철새 개체수가 지난해 1월 31종 5천451마리에서 올해 1월 50종 9천562마리로 크게 증가하는 등 매우기, 우렁이 등 먹이가 풍부해져 순천만과 영산호 등 전남지역에 철새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이치범 환경장관 来光

 이치범 환경부 장관이 '2007년도 호남권역 환경 정책 업무보고회' 참석차 26일 광주를 방문한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영산강 유역환경청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오후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는 '세계 물의 날 기념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여권 발급대행 없어진다

### 내년 7월 전자여권 발급

내년 7월 지문을 담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여권 발급 신청 대행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구청 등에서 여권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권 법정안을 입법하고 의견수렴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밤회 시점은 내년 7월로 예정된 전자여권 전면 발급에 맞출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그러나 생체정보인 지문을 여권에 넣는 방안에 대해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어 주민 계획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제31期 決算公告

### 貸借對照表

(2006年 12월 31일 현재)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77,080,859,158	I. 유동부채	34,509,976,983
(1) 담보자산	46,885,896,823	(1) 대입부채	13,078,801,848
1. 현금 및 현금류	11,862,248,979	2. 대기자금	18,000,000,000
2. 예금	35,934,024,955	3. 미지급금	687,024,857
3. 예금증여금	35,494,834,478	4. 선수금	24,859,219
4. 미수금	5,128,767	5. 미수금	458,270,767
5. 선금	180,050,620	6. 미지급비	500,959,806
6. 재고자산	30,194,862,335	7. 미지급법인세	1,314,128,370
7. 미지급화물	3,863,688,895	8. 유동성이연법인세부채	445,832,116
8. 재고	3,845,147,483		
9. 재고품	10,994,123		
10. 재고공	1,955,953,144		
11. 재고손실증가금	11,885,511		
12. 재고증가금	19,279,880,238		
13. 원자재	11,114,598,583		
14. 원자재증가금	42,373,868		
15. 고정자산	28,974,051,891		
16. 고정자산증가금	16,865,012,984		
17. 고정자산증가금	2,500,000		
18. 고정자산증가금	7,582,560,000		
19. 고정자산증가금	9,052,200,722		
20. 고정자산증가금	227,652,242		
21. 고정자산증가금	100,000		
22. 고정자산증가금	12,108,979,033		
23. 고정자산증가금	5,026,106,351		
24. 고정자산증가금	6,684,074,332		
25.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26.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27.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28.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29.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30.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31.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32.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33.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34.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35.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36.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37.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38.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39.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40.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41.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42.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43.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44.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45.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46.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47.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48.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49.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50.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51.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52.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53.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54. 고정자산증가금	1,392,900,000		</td